

국제금융 거점도시로서의 서울 : 국제환경 및 기회

- 서울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시의 중장기 전략과 관련한 최근의 일련의 논의는 향후 각론적인 추가 시책개발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음
 - 현재의 국제환경은 서울이 동북아 국제금융 허브로 부상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1) 국제환경으로서 동북아 경제협력과 새로운 역내 국제금융 거점도시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2) 아시아 타 경쟁도시와의 비교를 통해 서울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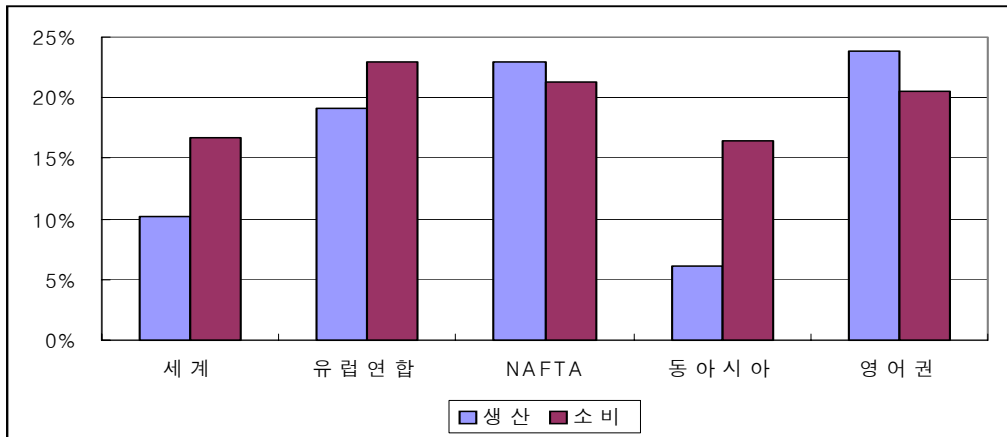
경제통합이 있는 곳에 금융 중심지가 있다

-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통합이 가장 잘 이루어져 있는 경제권은 구미 영어권 국가들(미국, 영국, 캐나다 등)이라 평가되는데, 그 근거로는 세계 주요 경제권 가운데에서도 이들 국가들간 주식시장의 연동성이 가장 높고, 경기변동의 흐름이 가장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임

[표 1] G-7 국가의 주식시장간 연동도 (단위: %)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
미국	100	70	51	26	36	44	22
캐나다		100	52	27	31	43	29
영국			100	36	43	54	35
일본				100	37	39	38
독일					100	60	37
프랑스						100	42
이태리							100

주: 1970년1월-1996년12월간 각국의 주요 주식시장 종합지수 기준
 자료: Lewis (1999,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주: 영어권 경제권의 경우 영/미/캐나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연동도 수준은 더 높아짐

[그림 1] 세계 주요 경제권 경기변동 연동도

- 국제금융 거점도시와 경제통합간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임
 - 구미영어권 경제권의 경우 역사적으로 볼 때 19세기말 대서양을 횡단했던 대규모 이민자로 인해 구·신대륙의 노동시장이 통합되었고 동 문화권으로서의 영국 및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동 경제권 구심력을 제공하면서 생성됨
 - 이러한 과정에서 양국의 금융 거점도시인 런던과 뉴욕이 세계 최대의 국제금융 거점도시로서 성장하면서 영어권 경제 통합을 촉진하는데 기여하였으며,
 - 20세기 중반 이후의 싱가포르와 홍콩의 지역금융 거점도시(regional financial center)로의 부상도 결국 영어권 경제 통합의 확대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유럽연합의 경우도 유럽통화연맹(European Monetary Union: 서유럽국가들 중 영국, 스칸디나비아국가, 스위스 제외)의 역내 자본시장 통합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동 경제권내 중심 국가인 독일이 프랑크푸르트에 유럽 중앙은행을 유치(2000년)하면서 동 도시가 새로운 금융 거점도시로

부상하고 있음

- 이는 향후 수년 이내에 과거 사회주의체제 하의 동구권 국가들이 대거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이들 국가들을 포괄하는 경제권을 지지하기 위해 동 지역과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현 독일지역을 포함한 과거 오스트리아제국 경제권)를 맺어온 독일지역에 유럽통화연맹을 대표하는 금융거점을 세우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포석도 그 배경에 있음

금융 거점도시의 지위는 안정적이지 않다

- 국제금융 거점도시는 경제권의 부침에 따라 그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각 금융 거점도시들은 자국 및 소속 경제권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 부단한 이노베이션 과정을 겪게 됨
- 1986년말의 주가 폭락으로 런던이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런던증권거래소가 취한 일련의 금융규제 완화조치(Big Bang)는 19세기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인 증권거래방식을 파격적으로 개선하여 런던이 새로운 국제금융 중심지로 거듭나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
- 2002년 1월 유럽 단일통화 출범 이후 런던 금융산업이 위협을 받게 되자 런던증권거래소와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를 연결 운영하려는 안이 영국과 독일 간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파리증권거래소와 밀라노증권거래소를 연계하여 운영하려는 안도 프랑스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논의 중인 상황임
- The Economist誌 (1995년 7월29일자) 보도에 의하면 금융 거점도시로서 고용 및 금융거래부문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낸 도시가 있는 반면, 급격한 쇠퇴의 길을 겪은 도시들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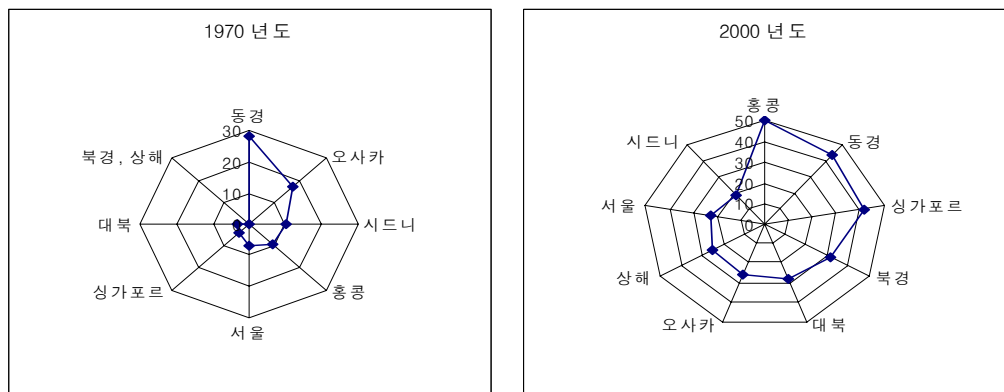
- 미국의 경우, 1935년 당시 17개 도시에 22개의 증권거래소가 존재하였으나 1990년대에는 이들 중 6개 도시에 7개 증권거래소만이 존속하였으며 3개의 새로운 거래소가 타 지역에서 신설됨

동북아 경제협력 - 새로운 역내 금융 거점도시의 필요성

- 현재 세계 3대 경제 축은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영어경제권, 유럽통화연맹 및 동구권을 포함하는 구 유럽대륙 경제권, 한국·중국·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권임
- 선진 영어권 국가들 및 현재의 유럽연합의 경우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의 전통이 큰 굴곡 없이 이어져 경제권의 통합이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중국 및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체제의 벽에 가로막혀 왔던 동북아시아권의 경우 최근에 들어서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
 -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배경은 다르나 19세기말의 동북아 경제권이 인구의 자유 이동, 노동시장 규제 부재 등으로 지금보다 더욱 통합되어 있을 가능성은 현재 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음
- 최근의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역내 자유무역지대 논의 등은 동북아 경제권의 경제통합을 위한 1단계 작업의 일환임
 - 수출입, 비즈니스, 인력이동 및 여행 등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현 조류에서 동 경제권내의 경제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곧 어떠한 형태로든지 경제통합으로 이어진다고 볼 때, 동 경제권 국제금융 네트워크의 지정학적 지도가 재편되어야 하는 상황임

서울의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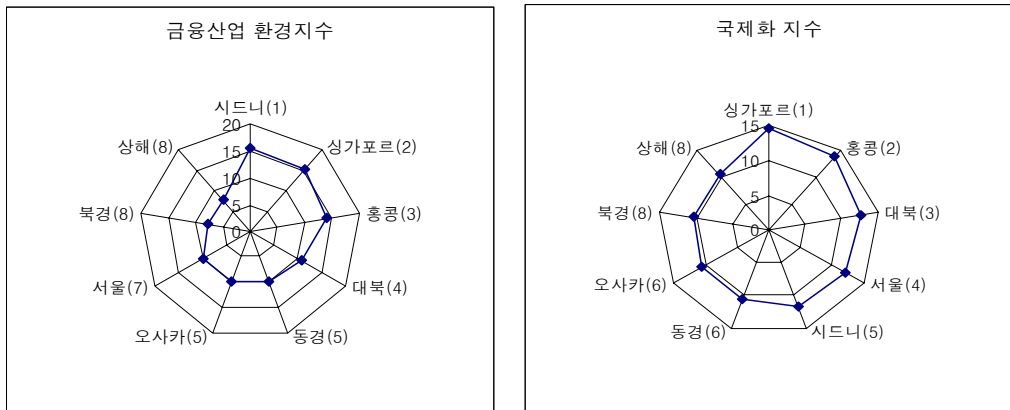
- 동북아 금융 거점도시로 동경, 싱가포르, 홍콩 등의 기존 금융 거점도시들과 서울, 상해, 북경, 대북 등의 신흥도시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
- 이들 도시들의 금융 거점도시로서의 경쟁력을 1)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세계 300대은행) 유치 정도, 2) 금융시장의 투명성 및 성숙도, 3)국제화 수준 및 국제화에 대한 태도 등의 세 가지 기준에 기초하여 평가하면,
- 서울은 아시아 주요 금융 중심 9개 도시(서울, 북경, 상해, 싱가포르, 홍콩, 대북, 동경, 오사카, 시드니) 중에서 2000년 말 현재 세계 유수의 은행 유치 부문에서 8위(23개 은행)를 차지하여 1990년도 3위(35개 은행)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함
 - 이는 1990년 이후 국내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세와 '97년의 외환위기의 영향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2000년 이후의 추세는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됨
 - 지난 30년간의 추세를 보면 동경, 오사카의 하락세 및 홍콩, 싱가포르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북경, 상해의 상승세가 주목할 만함



자료: 최생림, 박대근, Tschoegl, "Review of World Economics" (2003년 발표예정)

[그림 2] 아시아 9개 도시의 세계 300대 은행 유치 현황(1970, 2000)

- 금융시장의 투명성 및 성숙도로 본 금융산업 환경지수와 국제화수준 및 국제화에 대한 일반의 인식도로 본 국제화지수로 보면 서울시는 각각 7위와 4위에 랭크되는 것으로 평가됨



자료: IMD 2002년 국가경쟁력 보고서 내용 일부 참조

[그림 3] 아시아 9개 도시의 금융산업 환경 지수 및 국제화 지수

- 이상의 자료로 볼 때 서울시의 아시아 9대 금융거점도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중간정도의 수준이나 그룹간의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표 2] 아시아 9대 금융거점도시의 현재 경쟁력 구분

	도시
1군	홍콩, 싱가포르, 동경
2군	대북, 서울, 시드니
3군	오사카, 상해, 북경

- 상위그룹으로서 홍콩과 싱가포르는 세 분야에서 모두 상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동경은 금융환경지수 및 국제화지수는 저조한 편이나 대형 외국금융기관의 유치부문에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음
- 대북, 시드니가 서울시와 함께 중위그룹에 속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서울은 북경, 상해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 전반에 걸친 홍콩 및 동경의 하락세와 중국의 상승세로 미루어 볼 때 아시아 도시들 간의 경쟁력 격차는 최근 들어 더욱 줄어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서울시에 대한 시사점

- 이러한 추세는 서울시에 대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며, 서울시의 당면과제로서 유수의 대형 외국 금융기관을 추가 유치해야 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가 금융 비즈니스 중에서도 동북아를 커버하는 프론트 오피스 업무(트레이딩, 투자운용업무 등)와 같은 고급정보 집적분야를 유치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외국계 금융기관의 아시아 본사를 유치할만한 환경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됨
- 서울시가 추진하는 해외 마케팅 강화, 문화 및 환경인프라 개선 등은 국제금융 중심지 추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중요한 시책임
- 동북아 허브로서의 지정학적 위치를 살려 동북아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중심부가 되기 위해 동북아를 대표하는 금융기관(동북아개발은행)을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를 유치할 상징적인 센터 건립의 검토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오용협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yho@sdi.re.kr